

전공모집유형과 진로결정 일관성 여부에 따른 진로미결정 대응 능력 수준에 대한 연구

이 기 학[†]
연세대학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진로미결정에 대한 주관적 대응 능력을 알아보기 위해 수행되었다. 진로미결정에 대한 적응 능력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조사대상자를 전공 모집 유형(과별 모집 대 계열별 모집)과 진로 결정 유형(일치 집단 대 불일치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대학 입학시 과별 모집에 의해 이미 전공이 결정된 집단이 계열별 모집에 의해 아직 구체적인 전공을 결정하지 못한 집단보다 진로미결정에 대해 대응 능력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소년기에 고려한 전공과 대학 입학시에 결정한 전공이 일치하는 집단이 불일치 집단보다 높은 대응 능력 수준을 보여주었다. 단지, 이런 결과가 하위 차원에서 모두 일관되게 나타나지는 않았다.

주요어 : 진로미결정 대응능력, 진로결정 일관성 여부, 전공모집 유형

최근 상담심리학 분야에서 가장 관심을 끌고 있는 내용 중 하나는 대학생들의 직업 및 진로와 관련된 문제이다(Larson, Toulouse, Ngumba, Pitzpatrick, & Heppner, 1994). 진로 상담의 목적은 내담자의 의사결정을 용이하게 하고 상담 과정에서 발생하

는 문제를 극복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다(Gati, Krausz, & Osipow, 1996). 이러한 진로 상담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내담자의 진로와 관련된 문제 - 특히, 진로 미결정 - 의 발생 원인과 유형을 구분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기학은 연세대학교 인간행동연구소에 근무하고 있음.

† 교신저자 : 이 기 학, (120-749) 서울시 서대문구 신촌동 134 연세대학교 문과대학 심리학과,
전화 : 011-340-5356 E-mail : khlee@psy1.5.yonsei.ac.kr

개인의 진로 미결정에 대한 분석은 진로 상담 과정에서 많은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 진로 상담의 효과에 대한 증거치로 사용 가능하며(Mau & Jepsen, 1992), 진로 미결정의 원인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진로 향상 프로그램을 실시할 때 어느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지를 결정할 수 있는 자료로서 사용 가능하며(Haislett & Hafer, 1990), 진로 상담을 필요로 하는 내담자에 대한 선발용으로 사용 가능하며(Meyer & Winer, 1993), 또한 진로 결정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문제에 있어서의 남녀차이를 분석함으로써 차별화된 상담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Burns, 1994).

최근 몇 년간 대학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실태 조사에서도 살펴 볼 수 있듯이, 대학 신입생들이 앞으로의 대학 생활을 통해 예상되는 걱정거리로서 학업과 진로 문제를 우선 순위로 꼽을 뿐 만 아니라, 진로상담을 받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광희, 양은주, 최송미, 2001). 이런 현상은 국내 뿐 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미국의 전국 대학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응답자의 50% 이상이 진로와 관련되어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Hannah & Robinson, 1990).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학생들이 앞으로 어떤 진로를 선택하고 준비를 해야 하는 지에 대해 많은 혼란을 경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진로 결정과 관련된 과거의 연구들은 대부분이 진로 미결정의 유형 구분에 대한 것들이었다(Goodstein, 1965). 이러한 연구들은 Career Decision Scale(Osipow, 1987), My Vocational Situation(Holland, Daiger, & Power, 1980), 또는 Career Factor Inventory(Charlton, Robbins, Morrill, & Boggs, 1990) 등을 이용하여 개인 및 직업에 대한 정보의 부족, 의사결정 시점의 중요성, 지지의 부족, 지각된 장애 요인, 선택 과정에서의 혼란 등의 내용을 알아보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진로 미결정의 원인을 인지적 정보의 유·무에서 그 원인을 찾고자 하였다.

하지만, 효율적인 진로 미결정의 변별 및 진단을 위해서는 인지적 측면 뿐 만 아니라 자신의 진로 미결정 상태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 대응 능력에 대한 부분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Larson, Toulouse, Ngumba, Fitzpatrick, & Heppner, 1994). 예를 들어, 문제 해결 능력에 대한 개인적 평가(Larson & Heppner, 1985), 진로 미결정에 대한 대응 능력의 주관적 평가(Salamone, 1982), 그리고 학문적 자기-효능감 수준 등에 대한 내용들을 파악해야 할 것이다. 여기서 파악된 자료를 토대로 개인이 어떠한 이유에 기인하여 진로 미결정 상태에 놓여 있는지, 그리고 현재 자신의 진로 미결정 상태를 어느 정도 견디어 내고 있는지에 대한 주관적 평가 등의 정보를 다양하고 포괄적으로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직업 심리학 영역에서 진로 미결정에 대해 지금까지 수행되어 온 연구의 대부분은 아직 직업적으로 미결정된 유형 I(undecided type)과 직업을 결정하지 못하는 유형 II(indecisive type)로 구분하여, 유형 I은 전생애 발달 과정의 입장에서 정상적인 발달 과정으로 그리고 유형 II는 만성적인 문제 유형으로 단순히 구분한 이분법적 연구들이었다(Leong & Chervinko, 1996; Osipow, 1987; Scheier & Carver, 1985; Taylor, 1982).

그러나, 청소년의 발달 과정 상 정상적인 발달 과정으로 보고 있는 유형 I도 그 원인을 살펴보면 매우 다양한 이유에 기인한 것으로, 진로 미결정의 원인을 모든 개인들에게서 공통적이고 일관적인 것이 아니라 매우 복잡하고 중다영역적인 구인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Hartman, Fuqua, & Jenkins, 1986; Savickas & Jarjoura, 1991). 진로를 미결정한 학생들은 더 이상 하나의 동일 집단으로 함께 취

급해서는 안되며, 진로 미결정을 보이는 세부 원인에 따라 그 특성이 달리 나타나는 이질적인 집단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Chartrand, Robbins, Morrill, & Boggs, 1990; Larson, Heppner, Ham, & Dugan, 1988). 이상과 같은 진로 미결정에 대한 연구들은 진로 미결정의 유형 구분에 대한 연구에서 진로 미결정의 유형에 영향을 주는 원인 분석에 대한 방향으로 전환되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단순히 진로 미결정의 원인에 따른 유형 구분에 한정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진로 미결정의 원인 분석과 유형 구분에 대한 정보만으로는 올바른 진로 상담을 진행하기에는 한계를 갖고 있다. 좀 더 효율적인 진로 상담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단순한 원인 분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 생애 발달 단계 상 정상적인 발달 과정으로 보고 있는 진로 미결정 유형 I의 사람들이 실제로 그런 상태에서 어느 정도 수준으로 대응하고 견딜 수 있다고 느끼고 있는 지에 대한 정서적 부분에 대한 자료를 반드시 필요로 한다(Larson et al., 1994).

오늘날의 대학생들은 자신의 진로에 대해 결정을 내리지 못한 상태로 대학 입학할 경우가 많아, 대학에 와서 진로 문제를 호소하며 상담을 원하는 학생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이기학, 한종철, 1997). 특히, 과거와 같이 대학 입학시에 자신의 전공을 미리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계열별 모집과 과별 모집이 혼합되어 있는 지금의 대학 입학 제도에서는 더 많은 학생들이 진로 결정과 관련된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이들 학생들에게 진로 결정과 관련된 문제에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적극적인 상담 및 개입 치료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 올바른 진로 상담과 개입을 위해서는 개인이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지 못하는 원인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느끼는 심리적 문제에 대해 어느 정도의 대응 능력을 갖고 있는 지를 파악하는 것도 매우 필요한 일이다. 또한 진로 미결정에 관한 문제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에게 진로 미결정의 원인과 대응 수준에 대한 자료는 상담에 대한 동기를 높이는 데에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Osipow & Winer, 1996).

본 연구에서는 대학 입학 시 전공 선택 여부에 따른 진로 결정 정도를 살펴보고, 전공 선택 여부에 따른 진로 미결정에 대한 주관적 대응 감정에 대한 분석을 함으로써, 앞으로의 진로 상담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방 법

조사 대상자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진로 미결정 상태에서의 대응 수준을 알아보기 위한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서울에 소재한 대학에서 교양 심리학 과목을 수강하는 1, 2학년 270명의 대학생들로서, 남학생 173명(64.1%)과 여학생 97명(35.9%)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조사대상자를 1, 2학년으로 한정된 것은 계열별로 모집한 학생들이 3학년에서 최종적인 전공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또한, 전공 결정 여부에 따른 진로 미결정 대응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대학 입학시의 전공 결정 여부에 따라 두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대학 입학시 과별 모집을 통해 전공을 결정한 집단(208명)과 계열별 모집을 통해 전공을 결정하지 않은 집단(6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의 평균 연령은 20.23(표준 편차 1.89)세이다.

측정 도구

진로 미결정 대응 수준 측정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진로 미결정 대응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Larson, Heppner, Ham과 Dugan(1988)이 개발한 Coping With Career Indecision(CCI)을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번안·수정하여 사용하였다. CCI는 개인이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지 못하는 원인이 무엇이며, 그런 원인에 대해 어느 정도의 심리적 압박감을 받고 있는가를 측정하기 위해 고안된 검사이다. CCI는 4개의 하위 영역으로 구성된 총 3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4개의 하위 영역으로는 첫째, 주관적 진로 불안과 장애의 차원(Subjective Career Distress and Obstacles)으로 진로 결정 과정에 대한 부적의 감정을 나타내는 문항과 진로 결정 과정에 영향을 주는 장애물과 외적 압력에 대한 감정을 나타내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둘째 영역은 적극적 문제 해결의 차원(Active Problem-Solving)으로 문제 해결에 필요한 정보 및 지식의 부족에 대한 감정을 나타내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셋째 영역은 일반적인 학문적 능력에 대한 확신감의 부족을 나타내는 문항으로 구성된 학문적 자기-효능감 영역(Academic Self-Efficacy)이다. 마지막으로 진로 신념의 차원(Career Myths)으로 진로 결정의 중요성에 대한 믿음과 진로 선택의 긴급성을 나타내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각의 하위 차원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 계수는 .90, .78, .71, .69이며 총 35문항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 계수는 .89로 나타났다(Larson et al., 1994). 또한 2주 간격으로 측정한 재검사 신뢰도 계수는 .90이며, 각각의 하위 차원에 대해서는 .86, .68, .84, .73으로 나타났다. 한편 타당도 계수를 산출하기 위한 Larson 등(1994)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GPA와 -.20의 상관을 보였으며 Career Decision Scale-Certainty (Osipow, 1987)와는 -.66, 그리

고 My Vocational Situation(Holland, Daiger, & Power, 1980)과는 -.79의 상관을 보였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를 통해 실시된 CCI의 요인구조는 위의 결과와 다소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CCI의 요인 구조를 검증하기 위해, 주축 요인분해를 실시하여 고유치와 누적분산비율을 이용하여 요인의 수효를 결정하였다. 고유치가 2.00 이상인 요인의 수가 3개였으며, 총 변량 14.54에 대한 3개 요인의 누적분산비율이 79.39였다.

본 연구에서는 요인의 부하량이 .30미만인 문항을 제거한, 5점 척도(1: 매우 그렇다, 5: 전혀 아니다)로 구성된 3개 하위 차원의 총 26문항으로 구성된 CCI를 분석에 사용하였다(부록 1).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미결정에 대해 많은 심리적 부담을 느끼고 있음을 나타낸다.

본 연구의 요인 구조 검증 결과에 의하면, 전체 4개의 하위 요인 중 진로 신념의 차원은 하나의 요인으로 구분되지 않았으며, 주관적 진로 불안과 장애의 차원은 주관적으로 느끼는 장애 요인과 심리적 불안 요인으로 구분되어 2개의 차원으로 나누어졌다. 또한 적극적 문제 해결 차원과 학문적 자기-효능감 차원은 하나의 차원으로 합쳐졌다.

이들 요인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 계수는 주관적 진로 장애 차원(9개 문항)은 .84, 문제해결전략과 학문적 자기-효능감 차원(9개 문항)은 .83, 그리고 심리적 불안 차원(8문항)은 .82였다.

진로 결정 유형 평가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의 진로 결정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안정적 진로선택 유형과 불안정적 진로 선택 유형으로 구분하였다(Gianakos, 1999).

이러한 구분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안정적 진로 선택 유형은 고등학교 시절에 고려했던 전공과 대학 입학시 선택한 전공이 일치하는 집단으로 전체 응답자 270명 중 133명(49.3%)이 이에 해당된

다. 불안정적 진로 선택 유형은 고등학교 시절에 고려한 전공과 대학 입학시에 선택한 전공이 불일치 하는 집단으로 전체 응답자 중 137명(50.7%)이 이에 해당된다.

결 과

본 연구는 조사 대상자의 진로미결정 대응 능력 수준이 전공 모집 유형과 진로 결정 유형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지를 알아보았다.

진로 결정 수준에 따른 진로미결정 대응 능력 정도를 알아보기 방법으로는 1, 2학년을 대상으로 입학 당시 모집 구분에 따라 계열별 모집으로 입학한 학생과 과별 모집으로 입학한 학생을 구분하였다. 계열별 모집으로 입학하여 아직 최종적인 전공을 결정하지 않은 집단과 과별 모집으로 입학하여 최종적인 전공이 결정된 집단으로 구분하여, 전공 모집 유형에 따른 진로미결정 대응 능력 수준을 분석하였다.

또한 진로 결정의 안정성 여부에 따른 진로미결정에 대한 대응 능력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청소년기에 생각한 진로와 대학 입학시 결정한 진로

와의 일치 여부에 따른 진로미결정에 대한 대응 능력 수준을 분석하였다.

전공 모집 유형에 따른 차이 분석

모집 구분에 따라 계열별로 입학할 하여 구체적인 전공을 결정하지 않은 집단과 과별로 입학할 하여 구체적인 전공을 결정한 집단에서의 진로미결정 대응 능력 수준을 살펴본 표 1에 의하면, 입학 당시 전공이 결정된 집단(M=2.75, SD=.57)보다 계열별 모집을 통해 아직 구체적인 전공을 결정하지 않은 집단(M=2.96, SD=.54)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진로미결정 대응 수준의 점수를 보였다(F(1,268)=7.81, p<.01). 진로미결정 대응 수준의 총점 뿐 만 아니라, 하위 차원인 주관적 진로 장애 차원(M=2.70, SD=.64 대 M=2.50, SD=.70, F(1,268)=4.85, p<.01)과 문제해결전략과 학문적 자기-효능감 차원(M=2.85, SD=.52 대 M=2.51, SD=.57, F(1,268)=4.85, p<.05)에서도 전공이 결정되지 않은 집단이 전공이 결정된 집단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심리적 불안 차원에서는 두 집단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전공모집유형에 따른 진로미결정 대응 능력 점수

	CCI	SCO	PS-ASE	PD
전체(N=270)	2.91(.52)	2.66(.60)	2.77(.55)	3.34(.62)
계열(N=208)	2.96(.54)	2.70(.64)	2.85(.52)	3.56(.60)
과별(N=62)	2.75(.57)	2.50(.70)	2.51(.57)	3.30(.69)
F	7.81**	4.85**	20.05***	.45

주. () 안은 표준편차

SCO: 주관적 진로장애차원, PS-ASE: 문제해결전략과 학문적 자기-효능감차원,

PD: 심리적 불안차원

** p<.01, *** p<.001

이 결과는 다른 차원에 비해 심리적 불안 차원이 상대적으로 두 집단 모두에서 높은 점수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모집 유형에 따른 차이를 남녀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남자의 경우에는 전체 집단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진로미결정 대응 수준 총점과 하위 차원 중 주관적 진로 장애 차원과 문제해결전략과 학문적 자기-효능감 차원에서 계열별 모집을 통해 구체적인 전공이 결정되지 못한 집단이 과별 모집을 통해 구체적인 전공이 결정된 집단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다. 반면, 여자의 경우에는 계열별 모집 집단과 과별 모집 집단에서 차이를 보이는 차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자의 경우에는 진로미결정 대응 수준에서 차이를 보이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성차이에 따라 진로미결정에 대한 대응 능력 수준의 차이 여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전체적으로 남학생(M=2.83, SD=.54)보다 여학생(M=3.06, SD=.47)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다($F(1,268)=11.35, p<.01$). 3가지 하위 구인 - 주관적 진로 장애 차원, 문제해결전략과 학문적 자기-효능감 차원, 심리적 불안 차원 - 에서도

공통적으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진로미결정 대응 수준 점수를 보였다.

진로 결정 유형에 따른 차이 분석

표 2에 의하면, 고교 시절에 생각했던 전공과 대학 입학시의 전공의 일치 여부에 따른 진로미결정 대응 능력 수준을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불일치하는 집단 (M=2.98, SD=.52)이 일치하는 집단 (M=2.85, SD=.53)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다 ($F(1,268)=4.29, p<.01$). 하위 차원의 경우에는 주관적 진로 장애 차원 (M=2.75, SD=.65 대 M=2.57, SD=.66, $F(1,268)=4.92, p<.01$)과 심리적 불안 차원 (M=3.43, SD=.61 대 M=3.28, SD=.62, $F(1,268)=3.97, p<.05$)은 전공일치 집단보다 불일치 집단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를 보인 반면에, 문제해결전략과 학문적 자기-효능감 차원에서는 두 집단 간에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한편, 남자 집단과 여자 집단 모두 전공일치 집단과 전공 불일치 집단에서 진로미결정 대응 수준에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2. 진로결정유형에 따른 진로미결정 대응 능력 점수

	CCI	SCO	PS-ASE	PD
전 체(N=270)	2.91(.52)	2.66(.66)	2.77(.55)	3.34(.62)
일 치(N=133)	2.85(.53)	2.57(.66)	2.74(.57)	3.28(.62)
불일치(N=137)	2.98(.52)	2.75(.65)	2.81(.53)	3.43(.61)
F	4.29**	4.92**	1.13	3.97*

주. () 안은 표준편차

SCO: 주관적 진로장애차원, PS-ASE: 문제해결전략과 학문적 자기-효능감차원,

PD: 심리적 불안차원

* $p<.05$, ** $p<.01$

논 의

진로미결정에 대한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진로 미결정에 대한 인지적 원인을 탐색하는 것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Chartland et. al., 1990; Osipow, 1987). 그러나, 자신의 진로를 결정했다고 보고한 학생들의 상당수가 자신이 선택한 진로에서 자신의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을 지에 대한 이해의 부족(Dziuban, Tango, & Hynes, 1994)에 기인하여 실제로는 미결정 상태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결과는 진로 미결정의 인지적 원인에 대한 분석으로는 효과적인 진로 상담을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시사해주고 있다.

즉, 진로를 결정했다고 하는 학생과 진로미결정 상태인 학생 모두 미래의 진로에 대해 걱정하고 있기 때문에, 진로미결정 상태에 대해 어느 정도나 적용해가고 있는 지가 진로 상담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이 자신의 진로 미결정 상태에 대해 어느 정도의 적응 능력을 가지고 있는 가를 전공 모집 유형과 진로 결정 유형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첫째, 전공 모집 유형을 대학 입학시의 전공 결정 여부에 따라, 계열별 모집 집단과 과별 모집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과별 모집 집단인 경우에는 이미 대학 입학시에 구체적인 전공을 결정한 집단을 의미하는 반면에, 계열별 모집 집단인 경우에는 아직 구체적인 전공을 결정하지 못한 집단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들 집단의 진로미결정 대응 능력을 살펴보면, 계열별 모집 집단이 과별 모집 집단보다 진로미결정에 대한 대응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 요인별로 살펴보면, 진로 결정 과정에 영향을 주는 장애물과 외적 압력에 대한 부담을 나타내는 주관적 진로 장애 차원과 문제 해결에 필요한 정보와 일반적 학문 능력에

대한 확신감의 부족을 나타내는 문제해결전략과 학문적 자기-효능감 차원에서 계열별 모집 집단이 과별 모집 집단보다 진로미결정에 대한 적응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진로 결정에 대한 부담에 기인한 심리적 불안 차원에서는 두 집단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심리적 불안 차원에서 두 집단 간에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은 두 집단 모두 다른 차원에 비해 높은 수준의 점수를 보임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진로 결정의 안정성 수준에 따른 진로미결정에 대한 적응 능력을 알아보기 위해, 청소년기에 생각한 진로와 대학 입학시 결정한 진로와의 일치 여부에 따른 진로미결정 대응 능력 수준을 알아보았다. 청소년기에 고려한 전공과 대학 입학시의 전공이 일치하는 집단이 불일치 집단보다 진로미결정에 대한 적응 능력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 요인별로 살펴보면, 주관적 진로 장애 차원과 심리적 불안 차원에서는 불일치 집단이 상대적으로 진로미결정에 대해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지, 문제해결전략과 학문적 자기-효능감 차원에서는 두 집단 간에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진로 발달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일치하는 진로를 선택한 사람이 불일치하는 사람보다 높은 진로 자기-효능감을 가지고 있다는 기존 연구(Gianakos, 1999)와 다른 결과를 보여주는 것으로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자신의 일관적인 진로 선택과 결정에 대해 낮은 학문적 자기-효능감 수준을 갖고 있음을 시사해주고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 그 원인에 대해 체계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위의 두 결과에 기초한 바에 의하면, 비록 과별 모집에 의해 이미 전공이 결정되어 있는 집단 또는 청소년기의 진로와 현재의 진로가 일관성을 갖고 있는 집단이더라도 심리적 불안 수

준과 학문적 자기-효능감 수준이 높지 않음을 시사해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비록 진로를 결정했다고 보고한 경우에도 실제로는 자신이 결정한 내용에 대해 제대로 확신하고 있지 못할 뿐 만 아니라 결정에 대한 편안함의 부족 (Newman, Fuqua, & Minger, 1990)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진로 및 전공이 이미 결정되었다고 보고한 학생들의 상당수는 실제로 자신이 그렇다고 믿고 싶지만 현실적으로는 그 한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Super (1957)의 진로 발달 과업의 정형화 과업에 대한 비현실적인 믿음에 기인한 유사 정형화(pseudo-crystallization)로 볼 수 있을 것이다(Dziuban, Tango, & Hynes, 1994).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진로 결정과 관련되어 문제를 호소하는 내담자들을 상담하는데 있어서 몇 가지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우리나라의 대학 입학 현상이 과거와 다르게 과별 모집과 계열별 모집이 혼합되어 있는 실정에서, 진로 상담가들은 계열별 모집에 의한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불안과 압박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좀 더 심층적인 분석과 관심을 요구한다.

둘째, 비록 과별 모집에 의해 진로가 결정되었다고 보고한 학생의 경우에도 실제로는 많은 심리적 부담을 느끼고 있음을 상기해야 함을 암시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자신의 결정에 대해 더 높은 확신감을 가질 수 있는 방안을 제공해주어야 할 것이다.

셋째, 진로 상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진로 결정에 대해 불안정적 유형을 보이는 학생의 원인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특히, 이들은 안정적 진로 결정 유형 집단보다 심리적 불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바, 진로 상담을 통해 이러한 불안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이기학, 한종철 (1997). 진로태도 측정도구의 타당화를 위한 연구. *진로교육연구*, 8, 219-255.
- 양은주, 최송미, 한광희 (2001). 신입생의 진로의식에 대한 태도 연구. *연세상담연구*, 19, 3-18, 연세대학교 학생상담소.
- Burns, L. W. (1994). *Gender differences among correlates of career indecisio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exas Tech University, Lubbock.
- Chartland, J. M., Robbins, S. B., Morrill, W. H., & Boggs, K. (1990).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Career Factors Inventor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7, 491-501.
- Dziuban, C. D., Tango, R. A., & Hynes, M. (1994). An assessment of the effect of vocational exploration on career decision making. *Journal of Employment Counseling*, 31, 127-136.
- Gati, I., Krausz, M., & Osipow, S. H. (1996). A taxonomy of difficulties in career decision making. *Journal of Career Psychology*, 43(4), 510-526.
- Gianakos, I. (1999). Patterns of career choice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54, 244-258.
- Goodstein, L. D. (1965). Behavioral theoretical views of counseling. In B. Steffle (Ed.), *Theories of counseling* (pp. 140-192). New York: McGraw-Hill.
- Haislett, J., & Hafer, A. A. (1990). Predicting success of engineering students during the freshman year.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39, 86-95.
- Hannah, L. K., & Robinson, L. F. (1990). Survey report: How colleges help freshmen select courses and careers. *Journal of Career Planning and Employment*, 1(4), 53-57.
- Hartman, B. W., Fuqua, D. R., & Jenkins, S. J.

- (1986). The reliability/generalizability of the construct of career indecisio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28, 142-148.
- Holland, J. L., Daiger, D. R., & Power, P. G. (1980). *My Vocational Situation*. Palo Alto, CA: Consulting Psychologists Press.
- Larson, L. M., & Heppner, P. P. (1985). The relationship of problem-solving appraisal to career decision and indecisio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26, 55-65.
- Larson, L. M., Heppner, P. P., Ham, T., & Dugan, K. (1988). Investigating multiple subtypes of career indecision through cluster analysi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5, 439-446.
- Larson, L. M., Toulouse, A. L., Ngumbwa, W. E., Fitzpatrick, L. A., & Heppner, P. P. (1994).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Coping With Career Indecision.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2(2), 91-110.
- Leong, F. T., & Chervinko, S. (1996). Construct validity of career indecision: Negative personality traits as predictors of career indecision.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4(3), 315-329.
- Mau, W. C., & Jepsen, D. A. (1992). Effects of computer-assisted instruction in using formal decision-making strategies to choose a college major.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9, 185-192.
- Meyer, B. W., & Winer, J. L. (1993). The Career Decision Scale and neuroticism.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1, 171-180.
- Newman, J. L., Fuqua, D. R., & Minger, C. (1990). Further evidence for the use of career subtypes in defining career status.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39, 178-188.
- Osipow, S. H. (1987). *The career decision manual*. Odessa, FL: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 Osipow, S. H., & Winer, J. L. (1996). The use of the Career Decision Scale in career assessment.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4(2), 117-130.
- Salamone, P. R. (1982). Difficult cases in career counseling: II. The indecisive client. *The Personnel and Guidance Journal*, 60, 496-500.
- Savickas, M. L., & Jarjoura, D. (1991). The Career Decision Scale as a type indicator.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8, 85-90.
- Scheirer, M. F., & Carver, C. S. (1985). The Self-Consciousness Scale: A revised version for use with general population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15(8), 687-699.
- Taylor, K. M. (1982). An investigation of vocational indecision in college students: Correlates and moderator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21, 318-329.
- Super, D. E. (1957). *The psychology of careers*. New York: Harper & Row.

원고접수일: 2001. 9. 19

수정원고접수일: 2001. 11. 23

게재결정일: 2001. 12. 4

부 록

CCI의 요인 구조

문	항	요인1	요인2	요인3
	전공 혹은 진로를 결정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자주 내 자신을 책망하곤 한다.(R)	.67	.30	.32
	전공 혹은 진로를 선택하는 것을 연기하거나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R)	.66	.25	.12
	가능한 한 빨리 진로를 결정해야한다고 생각은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해서 불안하다.(R)	.64	.30	.38
	나는 자주 전공 혹은 진로 선택과 관련된 문제가 사라져주길 바라곤 한다.(R)	.52	.31	.36
	인생의 목표가 결여되어 있음을 자주 느낀다.(R)	.52	.35	.21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것을 숨기고 아닌 체하는 경향이 있다.(R)	.47	.16	.13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 어떤 직업을 갖게 되는지에 대해 거의 아는 바가 없다.(R)	.43	.25	-.14
	나에게 중요한 사람이 내 진로 선택에 찬성하지 않기 때문에, 그 직업을 추구하기가 힘들다.(R)	.41	.05	.10
	내가 선택한 진로에 맞는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R)	.34	.27	.06
	높은 수준의 학문적 능력을 갖고 있다.	-.02	.68	.06
	내가 선택한 직업을 갖기 위해 필요한 교과 과정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확신한다.	.25	.60	.04
	실제로 내 전공이나 진로 선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24	.59	.01
	진로 결정을 할 만큼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	.34	.58	-.16
	내가 잘 수행할 수 있는 진로가 어떤 종류인지 잘 알고 있다.	.36	.58	-.04
	높은 수준의 수리적 능력을 갖고 있다.	.03	.56	.08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진로에서 하는 일에 대해 잘 알고 있다.	.36	.52	-.14
	진로 또는 직업을 선택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하는 지에 대해 명확한 생각을 갖고 있다.	.31	.46	-.13
	선택한 직업을 얻기 위해 대학원 과정을 이수해야한다면, 대학원에 입학하여 잘 마칠 자신이 있다.	.18	.35	.02
	만족할 만한 전공 혹은 진로를 선택해야한다는 압박감을 느끼고 있다.(R)	.40	.25	.59
	전공 혹은 진로를 선택해야한다는 생각에 자주 우울감에 빠지곤 한다.(R)	.35	.24	.50
	전공 혹은 진로를 선택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매일 매일 시간을 보내고 있다.(R)	.19	-.04	.49
	어떤 진로를 선택하는가는 앞으로의 내 인생에서 해야할 일을 결정해주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진로를 결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R)	-.17	-.07	.46
	올바른 진로를 발견하게 된다면, 다른 많은 개인적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R)	.06	.01	.43
	전공을 선택하고 진로를 계획하는데 있어 자주 무력감에 빠지곤 한다.(R)	.38	.33	.42
	어떤 진로이던 간에 강력한 경쟁력을 요구한다고 생각하게 될 때마다, 나는 근심에 빠지곤 한다.(R)	.38	.33	.40
	그 일이 무슨 일이던 간에 어떤 결정을 내린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R)	.22	.26	.31
고유치		4.89	4.17	2.51
누적분산비율		33.41	62.11	79.39

Effects of the Adaptive Level of the Coping with Career Indecision by Types of Admission on College and Types of Career Choice

Ki-Hak Lee
Yonsei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d levels of the coping with career indecision of Korean college students. Subjects classified types of admission on college (admission by department or admission by major) and types of career choice (stable or unstable group). College students with career decision group (admission by major) had significantly lower scores on the Coping with Career Indecision than other. College students with stable group had also significantly lower scores on the Coping with Career Indecision than other. But, this result didn't show consistent between subfactors.

Key Words : the coping with career indecision, career choice types, types of admission on college